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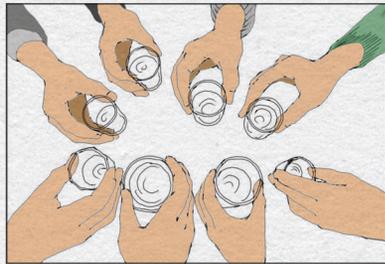
그때 그랬지...

회식의 추억

BBS 기술영상국



때는 5년 전 겨울, BBS 기술영상국 송년회식이 있던 날 1차 고기집에서 삼겹살을 먹으며 직원들 모두 폭탄주를 돌리며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었다.



그 중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했던 그 친구는 그 날 따라 기분이 좋았던지 폭탄주를 연거푸 들이키며 슬슬 취해가는 중이었다.



2차 맥주집에서 호프를 마실때도 그 친구는 연거푸 맥주를 원샷을 하며 송년의 밤을 즐기고 있었다.



3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데 노래방에 있는 탬버린을 들고 소품(가발)을 쓰며 다같이 트로트 및 댄스곡을 떼창으로 부르며 연말을 마무리하던 중...





그 친구는 노래를 부르다가
어느 순간 기억을 잃고
노래방 소파에 널부러져
잠들어버렸는데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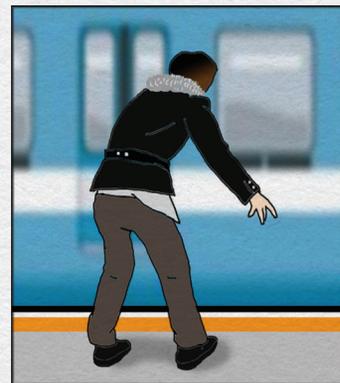
돌아와서 생각하니
그 친구에게 입힌 옷이
왠지 여성스럽다고 느꼈다.



기술국장님은 그 친구를 집에
보내라고 하였고
나는 그 친구에게 점퍼를 입히려
일으켜 세웠다.
왠지 잘 안들어가는 점퍼를
억지로 겨우겨우 입힌 후
지하철역까지 바래다 주고
다시 노래방으로 귀환했다.



헉! 순간 나는 직감했다.
기술국에 여자직원이 한명 있었는데,
그 점퍼가 여직원 점퍼였구나 라고,



이미 그 친구는 취해서 떠나갔고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. 맞지도 않는 옷을 꾸역꾸역 입혀 보냈던 것이다.
여직원은도 험령한 남자 점퍼를 입고 집으로 갔다고 한다.
다음날, 그 여직원과 친구는 서로 뽀뽀하게 점퍼를 바꿨다는 우스꽝스런 이야기다.
가끔 여자점퍼를 입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그 친구 생각을 하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.